

총선 D-26 민주 호남 현역 물갈이 얼마나 될까

# 2차까지 7명... 3차서 3~4명 추가 탈락할 듯

### 2배수 경합 광주 3곳서도 탈락 가능 광주 북구갑·순천도 3차까지 경합

통합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공천에서 6명의 현역 의원이 무더기 탈락할에 따라 '물갈이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통합민주당의 3차 공천 심사와 국민여론조사 경선 등을 거치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3~4명이 추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물갈이 쓰나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광주·전남지역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 수는 13일 현재 모두 7명이다.

12일 2차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5명(정동채, 김태홍, 채일병, 이상열, 신종식)과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영동연 의원, 또 공천 배제 기준을 넘지 못한 김홍업 의원 등이다.

그러나 3차 공천심사와 국민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3~4명이 추가

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 교체 비율은 50%를 넘는다. 현역 국회의원 2명만이라도 물갈이 폭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3차 심사 지역 및 2배수 경합지역=일단 3차 심사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락한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광주에서는 서구 을과 북구 갑, 북구 을 지역이, 전남에서는 해남·진도·완도, 순천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여론조사가 불가피한 2배수 경합 지역은 광주에서 동구와 서구 갑, 광산구 갑, 광산구 을 등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에서는 고흥·보성, 담양·곡성·구례 등이 꼽히고 있다.

무안·신안과 목포시의 경우, 3차 공천심사나 2배수 경합 지역으로 포

함될 수 있으나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고흥·보성과 담양·곡성·구례의 경우 3차 공천심사에서 단수 후보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공천 일정=통합민주당 공심위는 일단 이번 주 내에 공천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심위는 늦어도 15일까지 3차 공천 심사를 마무리하고 2배수 경합 지역을 당내의 '여론조사 경선위원회'에 넘겨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 뒤 오는 17 일께에는 공천을 끝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전략공천 지역도 이 기간 동안 정해될 전망이다.

일단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목포, 무안·신안 등 최대 3곳 정도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주에서도 전략공천이 1곳 정도는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비례대표 문제도 손학규, 박상천 대표와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전남지역 공천에서 탈락한 이상열, 신종식, 채일병 등 '구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를 만나 재심 요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열 "전혀 예측 못한 일 당혹" 정동채 "공심위 결정에 승복한다"

### ■ 민주당 공천탈락 현역의원 반응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현역의원 배제기준에 따라 탈락한 김태홍·이상열·신종식·채일병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공심위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일단 재심요청을 한 뒤 상황을 봐가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채일병 의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돼 일한 기간이 다른 의원의 절반도 안 되는데 같은 잣대로 평가한 것은 불공정하다. 억울하다"며 "(민주당을 탈당해서) 대통합민주신당 만든 것이 죄악이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심 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정치 행보는 재심 결과를 보고 다음에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식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정치 거래 및 밀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은 안타깝다"며 "탈락 의원 모두 통합에 앞장섰고 원

내 평가도 좋았으며 지역주민 지지도 높았는데 현역 의원 30%에 집착, 큰 것을 못 봤다"고 반발했다.

이상열 의원은 "전혀 예측 못한 일 당혹스럽다"며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후 행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지자와 시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홍 의원 측 관계자는 "의정활동 평가는 좋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광주 북구의 특성상(강한 후보가 있어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좋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반영해서 기회마저 봉쇄했는지 모르겠다"며 "언론에 나온 것일 뿐 최종 발표는 아니어서 당 지도부를 만나서 확인부터 할 것이다. 공식 입장은 그 이후 낼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정동채 의원은 "공심위 결정에 승복하며, 당의 앞날에 영광이 있길 바란다. 지역주민에 감사함과 죄송함을 전한다. 당에 힘을 보탬 수 있으면 보태겠다"며 호남지역 탈락 의원 중 유일하게 공심위 결정을 수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전략공천' 갈등 심화

### 박재승 "3자 합의 안되면 최종 결정권 달라"

### 지도부 "전략공천 결정권 지도부 고유권한"

통합민주당 공천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략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심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기세 싸움이 팽팽하다.

현재 손학규, 박상천 공동 대표가 박재승 공심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략공천 지역은 모두 30여 곳. 이 중 광주 3곳, 전남·북, 서울 각각 1곳 등 6곳은 박 대표가 옛 민주당 인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곳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현역의원이 탈락하거나 불출마한 곳 ▲금고 이상 비리 전력자 공천배제에 해당하는 지역 ▲정치적 의미가 큰 전략지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는 설명이다.

이중 손 대표의 서울 중로 공천 등 일정 부분은 3차 합의된 사항이지만

대부분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박재승 위원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전략 공천과 관련한 '3자 합의'가 안될 경우 "최종 결정권을 공심 위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두 공동 대표는 '전략 공천' 결정은 당 지도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관례'를 따르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두 공동대표 박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만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13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비리 전력자는 전략 공천에서 배제되는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

것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배제가 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승 위원장은 이날 공심위 전원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손 대표의) 발언은 제 생각과는 다르다. 제가 (그런 말을) 직접 듣지 못해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일축했다.

특히 박상천 대표가 요구한 6곳의 전략공천 주장에 대해서도 박재승 위원장은 '계파 챙기기'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 대표 측은 "박 대표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채신공천과 모순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채신공천이란 대의가 망가지지 않은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auzen**

바람이 시원해지면 여자가 즐거워진다

2008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여약대속제